

金庾信 傳承의 양상과 그 의미

오 대 혁*

목 차

1. 들어가며
2. 『行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속의 金庾信
3. 구비전승의 양상
4. 江陵 端午굿의 金庾信 전승
5. 마무리

1. 들어가며

金庾信(595~673)은 삼국간 전쟁에서 신라의 승리를 잇아오는 데에 중심된 역할을 수행한 장군이며 대신이다.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역사성과 설화성이 공존하며, 신이한 일화들과 영웅적 면모가 강조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김유신은 장군신으로서 강릉단오제의 신령으로 모셔지고 있어 민속학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명성 만큼이나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파한집』, 『동경잡기』,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대동운부군옥』, 『오주연문장전산고』, 『성소부부고』,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이전의 김유신에 대한 기록들을 취합한 실기로 <실라국 흥무왕전이라>,¹⁾ <김유신실기>,²⁾ <각간선생실기>,³⁾ 역사 소

*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설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박은식의 <김유신전>, 윤승환의 <김유신>, 이동규의 <김유신>이 전한다.

김유신 설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되어 왔는데 대체로 삼국 시대 설화문학을 살피든지, 아니면 傳文學을 중심으로 하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각간선생실기>와 같은 전기류를 다루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방향은 傳에 대한 개론에 집착하여 입전동기와 입전인물의 시대성, 구조적 특질 등에 매달렸던 것 같다. 즉 김유신이라는 인물의 면모를 문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를 둘러싼 민중의 수용과 통시적인 전승 양상, 전승 방식상의 여러 형태와 그 전승 형태 사이의 변별성을 밀도 있게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인물 설화는 사실과 '사실의 은폐·과장'이 공존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며, 기존 하던 이야기의 유형을 받아들이고 유기적인 질서도 갖추어 사실을 기억하되 창조적 요소가 깊이 관여하는 단계, 마침내는 사실이 완전히 망각되고 설화가 사실로 이해되며 자유롭게 창작을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⁴⁾ 그 결과 그와같은 설화를 취합하여 재구성한 소설 양식으로서의 변전이 일어나기도 한다.⁵⁾ 전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와같은 표현 방식과 양식상의 변이는 동시대와 개인적인 취향, 문화적 전통과 깊이 결부된다. 따라서 인물설화의 형성, 발전, 소멸, 재생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 곧 창작과 수용의 역사는 일정한 민족적 단위에서의 한 인물에 대한 의식의 변천사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⁶⁾

1) 『필사본 고소설 전집』 26권, 원광 대학교 영인본.

2) 영창서관 발행(1918), 『인천 대학 고소설 전집』 영인본.

3) 金淙燾 金昌宇刊本. 번역서로는 박두포, 『각간선생실기』, 을유문화사, 1972.

4) 조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 研究所, 1979, pp. 430~449. 참고. 여기서 인물 전설의 형성, 발전, 쇠퇴 등을 추론하고 있는데, 쇠퇴는 설화가 창조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19세기 말에 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각간선생실기> 등의 소설들은 기존의 김유신설화를 취합하여 당대에 유행하던 <삼국지연의>의 플롯을 형식적 바탕으로 삼아 서사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6) 테오도르 볼페르스, “구조적 내용 단위와 구체적 일반 원리로서 모티프와 주제”,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pp.209~222.

줄고, “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67.

그런데, 그러한 창작과 수용의 역사는 특히 주된 이야기 주체인 민중에게 크게 힘입게 된다. 김유신 설화 역시 위의 이야기 단계가 변화할 때마다 이야기층을 달리하며 형성·발전되었으며, 그 이야기 주체의 변화는 곧바로 전, 설화, 소설, 무속신 등 이야기되는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주로 강조하여 살피고자 하는 바 역시 이 부분이다. 그리고 김유신과 관련한 자료가 풍부한 만큼 그를 이해하는 방식을 좁혀 볼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였던 연구 분야를 천착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2. 『行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속의 金庾信

고려 仁宗 23년(1145)년에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에는 10편으로 나뉜 열전 에 50명의 인물이 立傳되어 있다. 그 중 <김유신전>은 세 편(권 제41~43)에 걸쳐 기술되어 김부식의 김유신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역사가로서의 신라 중심적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 그에 반해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의 <김유신전>은 『삼국사기』에서 도외시한 이야기인 고구려 첩자 白石을 통해 이야기되는 김유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미추왕 죽엽군>條에는 김유신의 死後 이야기가 실렸는데 逸事遺聞의 성격⁷⁾을 그대로 드러낸다. 『삼국유사』 <김유신전>과 글의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는 고려 원종 1년(1260)에 그의 아들에 의해 간행된 李仁老의 『파한집』 소재 김유신과 天官女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다. 사실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흥미와 인과적 구성 아래 뚜렷한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와 『파한집』의 이야기들이다. 대체로 이 이야기들은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것을 커다란 변질 없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⁸⁾ 이는 곧 설화적 성격을 많이 담고 있다는 말이겠다. 그런데 《파한집》의 이야기는 앞에서 밝힌 이야기 주체가 민중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져 다음 장에서

7) 이는 書名 자체가 바로 드러내주고 있기도 하며, 紀異 第一 攄의 怪力亂神의 이야기에 대한 그의 긍정적 평가에서도 보인다.

8) '설화에 있어서 기록자의 의도적인 창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이미 설화가 아닌 창작 문학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曹喜雄, 『說話學綱要』, 새문社, 1989, p.8.)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은 작자의 의도와 결부되어 실사와 허구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없다. 저자의 의도와 결부시켜 그 문헌에 드러나는 설화적 성격의 이야기들을 추출해 보고, 『삼국유사』와 비교 또는 대비하면서 <김유신전>의 의미를 재구해보도록 하겠다.

김부식이 <김유신전>을 기술하는 데 바탕으로 삼은 문헌은 김유신의 玄孫인 신라 執事郎 長淸이 지은 10권의 『行錄』이다. 郎(史)은 중앙관부의 최말단 관리로 6두품 이하의 관리가 맡았던 것으로 보아 김유신의 가문이 이 때에 와서는 6두품 이하로 강등되었던 듯하다.⁹⁾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찾아본다면 혜공왕 6년(770)에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측되는 金融이 난을 일으켜 사형을 받았던 사건 때문으로 보이는데,¹⁰⁾ 김장청은 그의 伸冤 운동의 일환으로 신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玄祖 김유신의 『행록』을 썼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가문의 쇠락을 염려하여 장청은 삼국간 전쟁에서 많은 공훈을 세우고 가문을 빛냈던 고조부 김유신의 행적을 10권 분량으로 기술하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그 전기의 주인공인 김유신의 위대성이 강조되고 사실이 과장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장청의 것을 추렸다는 『삼국사기』의 <김유신전>만 보더라도 김유신은 한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은 인물이며, 충절 있고 예시력을 가진 영웅적 인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그의 『행록』은 『삼국사기』의 것보다 더욱 더 사실의 은폐와 과장이 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 『행록』은 김부식이 볼 때 기록이 매우 빈잡하였던 까닭에 그는 그 글을 추려서 쓸 만한 것을 따다가 입전하였다.¹¹⁾ 그리하여 김부식은 김유신과 관련된 신이한 행적들을 ‘번거로운 이야기가 많다(頗多艱辭)’라는 명목 아래 버리고, 합리적 사유에 바탕을 둔 역사가의 입장에서 실사에 초점을 두고 出將立上하는 김유신¹²⁾을 그렸던 것이다. 즉 장청의 김유신행록이 기존의 역사와 설화들을 풍부하게 수집하여 영웅화의 관점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에 반하여 『삼국사기』의 <김

9) 申濬植, “金庾信家門의 成立과 活動”,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90(중판), p.255.

10) 李基白, “金大問과 金長淸”, 『한국사 시민강좌』, 一潮閣, 1987, p.99.

11) 頗多艱辭 故刪落之 取其可書者爲之傳. (『삼국사기』 열전, 권43.)

12) 김진영은 열전의 3할 분량을 <김유신전>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를 ‘김유신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부여’로 보고 ‘신라중심의 역사 서술에다 출장입상의 신하로서의 의미부여’라고 보았다. (金鎭英, “文獻所載 金庾信 說話考”,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한국고전문화연구회 편, 一潮閣, 1978, p.243.)

유신전>은 ‘설화를 역사화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작품’¹³⁾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전>에는 여러 설화적 삽화가 끼여들었다. 여기서 설화적 삽화라고 함은 ‘민중의 상상력이 더하여 허구화된’¹⁴⁾ 것이되 완벽한 설화의 구조와 형식을 취하지는 못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이러한 의미를 통해 보았을 때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드러나는 설화적 삽화들은 ① 김유신의 출생 대목, ② 김유신이 天上의 도움을 받는 여러 대목들, ③ 죽음을 예견하는 대목, ④ 『삼국유사』 <미추왕 죽엽군>조에 상세히 기술된 죽은 후의 이적 등이다.

김유신의 출생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가야 수로왕의 후손이라 하여 고귀한 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버지 舒玄과 신라 계통인 어머니 萬明 사이에 벌어지는 야합과 혼사 장애가 있다. 그리고 서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별을 꿈꾸고, 만명은 구름 탄 동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20개월만에 유신을 낳았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에는 만명과 서현의 이야기가 생략되고, 형제 관계, 그리고 태몽과 관련하여 七曜의 정기를 타고났다는 간단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삼국사기』는 김유신이 고귀한 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가야계 왕손이라 하였고, 성장과정에서의 천상과의 연결을 천착하였음인지 태몽에서 천상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현과 만명의 혼사장애는 영웅전승의 전형적인 모티프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¹⁵⁾ 가야계와 신라계 간의 역사상의 갈등을 설화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김유신의 가문은 가야계 출신으로서 정치적 상승을 꿈꾸며 武將으로 전공을 세워 가는데, 그 기간 중에 서현이 중앙 귀족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진흥왕의 동생인 肅訖宗의 딸(만명)과 야합하였던 사실이 설화 배후에 있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¹⁶⁾ 어쨌든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은 출장입상하는 김유신의 면모와 관련하여 출생부터 천상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삼국유사』 <김유신전>은 단출하게 김유신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출생을 전생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은, 흥미롭고 특이할 만하다. 출생에

13) 金鎮英, 앞의 글, pp.246~247.

14) 曹喜雄, 앞의 책, p. 9.

15) 金烈圭, “巫俗의 英雄考 : 金庚信傳을 中心으로 하여”, 『진단학보』43, 1977, p.90.

16) 申禎植, 앞의 글, pp.244~249.

대한 이야기가 있는 다음 <김유신전>의 후반부는 모두가 전생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즉 고구려의 첩자인 백석이 김유신을 유인하여 고구려로 끌어갈 생각이었으나 奈林, 穴禮, 骨火의 낭자로 변한 세 호국신¹⁷⁾의 도움을 얻어 그 위기를 모면하고, 김유신의 전생을 백석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게 하고 있다. 김유신의 전생은 고구려의 점장이인 楸南으로 국경의 물이 거꾸로 흐르는 그 연유를 알아내어야 했다. 이에 추남은 대왕의 부인이 음양의 도를 역행하여 그리 된 것이라 그 이유를 밝히자 그 진술의 진위를 판가름 하려고 쥐 한 마리를 넣은 함을 보여 주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자 그는 여덟 마리의 쥐가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죽음을 맞게 된다. 추남은 죽음에 직면하여 죽은 후 대장이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 죽는다. 마침내 함 속의 쥐 한 마리가 일곱 마리의 새끼를 배고 있었던 사실을 추남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대왕의 꿈 속에서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김유신을 유인하여 죽이고자 하였다고 백석은 실토한다. 호국신의 도움을 얻어 김유신이 위기를 모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김유신의 전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출생이 별이라든가 구름 탄 동자와 같은 천상과의 연결을 중시 여겼던 것에 대비해 『삼국유사』에서는 전생의 因에 의한 果로서 김유신이 태어났다는 불교의 輪廻的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삼국유사』 <미추왕 죽엽군>조에 보이는 김유신의 후생에 대한 기록도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三世의 時間觀念'¹⁸⁾에 의해 일연이 의도적으로 撰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일연의 의도는 <김유신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財買谷에 지은 願刹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암시되며, <太宗春秋公>조에서는 조금은 다른 형태지만 또다시 삼세에 대한 승려로서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다¹⁹⁾.

17)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中嶽 석굴에 들어가 수도하던 중에 한 노인에게서 비법을 전수 받은 것으로 나온다. 어쨌든 김유신과 관련하여 세 호국신과 노인 등 神仙의 등장은 천신 숭배, 자연숭배, 조상 숭배 등의 의미를 가졌던 화랑의 도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림, 혈레, 골화는 화랑이나 국가에서 제를 드렸거나 수련을 하던 것으로 보아 마땅하겠다. (崔三龍, 『韓國文學과 道敎思想』, 새문사, 1990, pp. 56~72. 참조)

18) 金承鎭, 『韓國僧傳文學의 研究』, 民族社, p.80.

19) '삼십삼천三十三天의 한 사람이 신라에 태어나서 김유신이 되었느니라.(三十三千之一人降於新羅爲庚信.)' 라고 하여 불교의 윤회관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천상의 도움을 받는 대목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어떠한 의식으로 천상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 간단히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다.

- ㄱ. 17세에 중악 석굴에 들어가 간곡하게 기원하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비법을 전수시켜 주었다. (열전 제1)
- ㄴ. 18세에 咽薄山에 들어가 재차 간곡히 기원하자 두 개의 별이 유신의 검에 떨어져 검이 동요하였다. (열전 제1)
- ㄷ. 백제와의 싸움 중 유신이 道薩城 아래 진을 쳤는데, 물새 한 마리가 유신의 군막을 지나는 것을 보고 백제의 간첩이 올 것을 예상하였다. (열전 제2)
- ㄹ. 장군들이 백제의 잔적을 치러 간 사이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산성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유신이 절간에 가 귀신의 도움을 기원하였다. 그러자 고구려, 말갈 진영에 큰 별이 떨어지고 뇌우와 벼락이 떨어지니 적군은 놀라 도망하였다. (열전 제2)
- ㅁ.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치던 어려운 국면에서 절에 가 기도하고 감응을 얻어 적을 격파하였다. (열전 제2)

ㄱ, ㄴ은 김유신이 화랑으로서 수련기에 천상의 도움을 받는 대목들이고 ㄷ, ㄹ, ㅁ은 장수로 나아가 싸움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천상이 도와준 대목²⁰⁾들이다. 천상이란 지상과 대립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상의 인간을 돕고 의지하게끔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민중은 하늘 자체를 고귀한 것, 신성한 것, 尊崇하여야만 할 초월적 대상이라는 관념도 가졌지만, 그 하늘에 정신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천상과 지상이라는 수직적 개념을 변화시켜 지평선 너머에 천상과 대비될 만한 세계가 있다고 여기기도 하였다.²¹⁾ <김유신전>에 보이는 천상에 대한 인식은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유신이 천상에 간곡히 기원하여

20) ㄷ은 조금 예외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새’가 가지는 이미지가 공간적으로 천상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면, 물새의 출현은 곧 첩자를 잡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천상의 도움이다.

21) 수직적 개념에서 수평적 개념으로 피안의 세계를 인식하였던 예는 무가 <바리테기공주>와 같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

林在海, 『민속문화론』, 文學과知性社, 1989, pp.158~161. 참조.

曹喜雄, 앞의 책, pp.91~92. 참조.

하늘에 가까이 접근하게 됨으로써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유신전>에서 하늘은 인간이 치성을 들이면 소원을 들어주는 협조자이다. 위에 열거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²²⁾ 예컨대 김유신이 한가윗날 밤에 고구려의 간첩이 음을 짐작하고 그를 붙잡아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우리 나라 임금은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민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여 자기 일을 즐기고 있’²³⁾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상은 경외의 대상이며 민심과 다름이 없는 대상이다. 곧 天道와 人道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毗曇의 반란을 막아내는 이야기에서는 인도가 천도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담 도당이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고 나무라며 반란을 일으켜 싸움을 하던 중에 큰 별이 왕의 군사가 있는 月城에 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별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피흘릴 일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정녕 여왕의 패전할 징조’²⁴⁾라는 여론이 인다. 이러한 여론을 뒤집으려 김유신은 왕에게 ‘길흉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²⁵⁾라며 중국 고사를 들려주어 안심시키고, 불을 지른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 하늘로 날려보내 ‘어제 밤에 떨어졌던 별이 도로 올라갔다’²⁶⁾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비담의 무리를 패주시킨다. 말하자면 『삼국사기』 <김유신전>은 천상의 도움을 치성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천상의 도리와 지상의 도리가 함께 놓일 수 있되, 지상의 도리가 우선한다는 유교적 의미를 김유신의 행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문무대왕 13년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고 지진이 있어 왕이 이를 근심하자 김유신은 ‘오늘의 변괴는 죄가 저에게 있는 것이요 국가의 재앙이 아니오니 왕께서는 근

22) 金泰俊(“金庾信傳 연구”, 『新羅文學의 新研究』, 신라문화선양회, 1986.)은 <김유신전>에서 하늘을 ‘인물의 숭사적 성격을 높이기 위한 수사적 제시도 아니다. 이곳에서의 하늘은 인간적 至誠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곧 天道에 의지하는 신앙적 태도가 주로 되’었다고 하였다.

林燮澤(“三國史記 列傳의 문학성 : <金庾信傳>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12집, 1989.)은 ‘하늘을 무소불능의 권능을 지닌 인격신으로 믿고 있었던 듯하다. 요컨대 김유신의 의식 속의 하늘은 절대자이며, 이 절대자로부터 그는 부단히 보증과 후원을 끌어냈던 셈이다.’라고 하였다.

23) 吾國王 上不違天意 下不失人心 百姓欣然 皆樂其業. (『삼국사기』 권 제42)

24) 落星之下必有流血 此殆女主敗績之兆也. (『삼국사기』 권41.)

25) 吉凶無常 惟人所召. (『삼국사기』 권 제41.)

26) 昨夜落星還上. (『삼국사기』 권 제41.)

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다. 그리고 여름 6월에 난데없이 군복을 입고 병기를 든 수십 명의 괴한이 유신의 집으로부터 울면서 나오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지키던 귀신 군사가 떠나는 것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라 예견하고 죽음을 맞이한다.²⁷⁾

열전의 구성은 대체로 입전대상의 출생담, 행적, 죽음, 처자손록, 평결로 이루어지는데, 열전 권 7의 경우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장렬한 전사를 한 무인들의 죽음을 기리려 입전되기도 하였다.²⁸⁾ 『삼국사기』 <김유신전>역시 그의 죽음 대목을 중요하게 다룬다. 다른 관련 문헌이나 구비문학에서 그의 죽음이 다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 유념하여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김유신의 죽음 예견 대목에서는 두 가지 의미 추출이 가능하다. 첫째, 자신의 죽음을 예견케 하는 '이상한 별의 출현'과 '지진발생', 그리고 '守護兵'이 그의 집을 빠져나갔다는 데서 발견되는 무속적 의미다. 이는 <미추왕 죽엽군>조에 나타나는 국가 수호신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당은 수호령을 지녀야만 무업을 실행할 수 있고, 그 수호령을 상실한다는 것은 무업의 포기이며 죽음과도 같다.²⁹⁾ 『삼국유사』에는 전생의 추남이 김유신으로 화하였다 하였는데, 추남이라는 인물은 고구려의 卜筮之士라고 하였던 것과도 연결되어 고대인들의 제사장에 대한 인식이 <김유신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삼국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유신은 수련 과정에서부터 仙人이나 수호신, 천상 등의 도움으로 뛰어난 지략을 쓰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나이 들고 노쇠해져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는 것은 그를 지키고 있었던 수호령이 그를 떠나갔다는 관념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인식 아래 후대에 천재지변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면서 위대한 영웅의 죽음을 그랬던 것이라 하겠다. 둘째, 작자의 의식이 김유신의

27) 『삼국사기』 권 제43

28) 열전 제 7은 奚論, 素那, 驛徒, 訥催, 薛鬪頭, 金令胤, 官昌, 金歆運, 裂起, 丕寧子, 竹竹, 匹夫, 階伯 등의 인물을 입전하고 있는데, 열기를 제외한 모든 이들의 장렬한 최후를 그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명희, 「三國史記 列傳의 소설사적 위상」, 『古小說史의 諸問題』, 集文堂, 1993, pp. 409~415.

29) 金烈圭, 앞의 글, p.93 참조.

죽음에 와서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간 전쟁이 신라의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으로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문무대왕과의 대화 속에 집약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대왕이 울면서 '나에게 있어서 그대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인데 만일 피치 못할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은 어찌되며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³⁰라고 말하자,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르며 '삼한이 통일되고 백성들이 단결되어 국가가 비록 태평 무사한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조금 편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³¹라고 하였다. 김유신의 국가에 대한 위국충절의 모습을 임금에 대한 충언에서 읽게 하고 있으며, 三韓一統 의식의 긍정적 평가를 보게 한다. 즉 『삼국사기』 <김유신전>은 신라가 삼국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것에 긍정하며 그 전 통일신라시대에 쓰여졌을 역사서에 대해 비판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겠다.³² 그리고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각간선생실기>라든지 <해동명장김유신>과 같은 전기문학 작품 또한 위대한 영웅 김유신이 삼국을 하나로 통일하였다는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후대에 쓰여졌다.

김유신의 사후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가 간단히 처리하고 있는 반면 『삼국유사』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먼저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여름 4월에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유신의 무덤으로부터 시조 대왕의 능에 이르기까지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하여 사람과 물건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능을 수호하던 사람이 들으니 능 사이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해공대왕이 이 말을 듣고 송구하여 대신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기의 허물을 사과하고, 또 추선사라는 절에 밭 30결을 주어 유신의 명복을 비는 밀천으로 하게 하였다. 이 절은 유신이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한 뒤에 설립한 것이다.³³

30) 寡人之有卿 如魚有水 若有不可 其知人民何 其如社稷何。(『삼국사기』 권 제43)

31) 三韓一家 百姓無二心 雖未至太平 亦可謂小康。(『삼국사기』 권 제43)

32)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일부 영토를 취한 때에 당대 신라인들은 三韓一統 의식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淸州市雲泉洞寺蹟碑』(神文王 6년, 686년)에는 '三韓을 통합하니 나라의 땅이 넓어졌다'라고 하였고, 최치원의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는 '삼국이 이제서야 장하게도 한 집안이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柳得恭의 『渤海考』에 가서야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은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南北史가 있어야 할 터인데'라고 하여 남북국시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김영하,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1.)

위의 줄거리는 『삼국유사』 <미추왕 죽엽군>조에서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 <미추왕 죽엽군>조는 것은 김유신이 왜 슬피 울며 탄식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있으며, 혜공왕이 왜 자신의 허물을 사과하고 발까지 주어가며 명복을 빌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 기록에 보면 김유신은 자신이 평생에 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하였고 죽어서도 나라를 수호하고 있는데 경술년³⁴⁾에 자신의 후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한 것에 슬퍼하고 탄식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혜공왕이 행한 일은 다시는 나라를 수호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시조왕(미추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유신을 대하는 입장을 추출해낼 수 있다. 즉 김유신의 행동은 영웅적이라기보다는 자손에 대한 냉대에 화를 내어 국가수호마저 내팽개치려 하는 범속한 인간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의 영웅적 인물 형상화에 골몰했던 김부식은 그같은 이야기들을 버리고 인과성이 떨어진 혼전만을 남겨 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일연은 영웅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설정하여 아무리 비범한 인물이더라도 범인과 무엇이 다름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김유신의 죽어서의 이적을 대하는 두 찬자의 태도는 이렇듯 판이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김유신의 출생, 천상의 도움, 죽음의 예견, 사후의 이적 등을 통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유신전>이 갖는 차이점을 대략 짚어 보았다. 김유신을 대하는 두 주체인 김부식과 일연은 기존의 사료나 설화들을 취합하여 기술하되 전자가 설화의 역사화와 인물의 영웅화에 온 힘을 기울인 반면, 후자는 불교적 입장을 기본축으로 하여 설화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존재했던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텍스트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허구의 섞임의 정도는 차이가 드러났다. 짐작하건대 장칭의 <행록>은 사실도 풍부했겠지만 사실의 과장이

33) 夏四月 施風盆起 白庚信墓至始祖大王之陵 塵霧暗冥 不辨人物 守陵人 聞其中 若有哭泣悲嘆之聲 惠恭大王 聞之恐懼 遣大臣致祭謝過 及於驚仙寺 納田三十結 以資冥福 是寺 庚信平麗濟三國所營立也。(『삼국사기』 권 제43)

34) 혜공왕 6년이니 대야찬 김용의 반역 복주사건을 말한 것인 듯하다. 그러나 김용이 유신의 후손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또 『삼국사기』<김유신전>에도 회오리바람이 유신의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기사는 있으나 김용의 伏誅 사건은 실리지 않았다.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며, 그 『행록』을 추린 김부식은 역사적 사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겠지만 영웅적 면모를 살리려다 보니 『행록』에 드러나 있던 설화들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일연은 역사적 사실에 골몰하지 않고 불교적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설화들을 많이 수용하여 설화가 사실로 이해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사실과 사실의 은폐·과장이 공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들이며, 이야기 주체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김유신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대하면서 이러한 인물전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라 하겠다.

3. 구비전승의 양상

발생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전설은 설명적 전설, 역사적 전설, 신앙적 전설로 나누어 설명된다. 여기에서 역사적 전설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성장한 것인데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기반으로 민중의 기억이나 지식에 결합되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에는 지방적, 국가적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³⁵⁾ 김유신과 관련한 설화의 경우도 대체로 역사적 전설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는데, 현전하는 구비설화를 보면 『한국구비문학대계』(앞으로는 『대계』라 줄여 쓴다)의 여덟 편 가운데 경상도가 6편, 전라도가 2편 나타난다. 이 설화들은 장육산·단석산·열박산 등 구체적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어 전설적 성격이 짙다 하겠지만 史書에서 처럼 역사적 사실에 매달리지 않고 설화 자체의 논리에 따라 김유신을 이야기하고 가치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이야기처럼 영웅화 일색이거나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김유신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거나 비판적으로 보려는 입장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수용·발전시켰다는 점이 김유신 구비설화의 특징인 것이다. 이외에 현전 문헌설화로서 이와 같은 특징을 『파한집』의 <天官女 이야기>가 담고 있고, 아예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없는 『삼국유사』의 <密本摧邪>조의 이야기, 『殊異傳』에 실렸다가 『大東韻府群玉』에 남아 있는 <竹筒美女>와 <老翁化狗> 등도 찾아볼 수 있다.

35)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pp.42~43.

그런데 위에 열거한 설화에서 『대계』의 작품들은 김유신의 일생에서 ① 수련 과정이나 ② 입공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천관녀 이야기>는 수련 과정에 얽힌 이야기이며, 『삼국유사』와 『대동운부군옥』의 세 이야기는 ③ 도술과 관련되어 김유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구전설화들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각각의 설화가 김유신의 일생에서 어떠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고, 위에서 말한 김유신 구비설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김유신의 수련은 대개가 斷石山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석산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와 있는 中嶽³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의 12편의 설화 중에서 다섯 편이 이러한 이야기이다. 단석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김유신이 그 산에서 무술 공부를 할 때 칼로 바위를 쳐 그 바위를 끊었던 이야기에서 나온 때문이라 한다. 여기서 칼은 김유신이 삼국간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경북 월성군 산내면 설화³⁷⁾를 보면 ‘김유신은 그렇게 힘이 신 장수가 아이러요. … 단석산에서 칼로 가주고 바우를 견주면서 “깨지라!” 이카이, 바우가 탁 갈라지고 …그런 기술로 많이 싸웠지요’ 라고 하는 데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다.

수련과정에서 눈여겨 볼 만한 이야기로 생각되는 것은 <천관녀 이야기>이다. 『파한집』에 실린 이 이야기는 김유신이 출장입상하기 전에 시련을 겪고 일어난다는 일종의 수련 과정에 얽힌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유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엄한 훈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기생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를 안 어머니가 그를 꾸짖게 된다. 그 뒤 김유신이 술에 취해서 말을 땀을 때 그 말이倡家로 인도하자 술에서 깬 김유신은 그 말의 목을 베어 버렸다. 이에 천관녀가 怨詞 한 곡을 지어 그 노래가 전해져 온다고 하며, 東都(경주)에 천관사가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천관녀의 집자리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 酒色에 탐닉했던 김유신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민가에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채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관녀 이야기>는 소년기에 겪는 애욕에 대한 극복을 주제로 하여 김유신의 비범성을 보여주

36) 『대계』의 <김유신과 咽薄山>(경남 울산시, p.36)에서 단석산을 일명 중악이라 한다고 했다.

37) 『대계』, <김유신과 장육산>, 경북 월성군 산내면, pp.570-576.

면서도 애뜻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보여주는 그의 초월성이나 신이성과는 또다른 김유신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김유신의 입공과정은 『삼국사기』에서 삼국간 전쟁의 모습과 통일을 위해 겪는 시련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비해 현전하는 구전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고 조각난 이야기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중의 재기 발랄한 이야기가 섞여 들어 김유신을 높이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그의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어 흥미롭다.

먼저 입공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인간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북 경주시 설화가 있다. 이 설화에서 김유신은 참으로 따뜻한 정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에서 김유신은 백제 군사 장군을 만나 降書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제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풀어 먹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구비설화 속에서 민중은 지배자들의 강압과 가난에 시달리던 자신들의 삶을 구제해 줄 治者를 꿈꾸었고, 그러한 꿈이 김유신의 입공 과정 속에 스며든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김유신과 소정방의 대결 설화 속에 투영된 민중의 의식은 민족적이며 비판적이다. 그 대결은 『대계』의 두 설화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멸망을 눈 앞에 보며 소정방과 김유신 가운데 항복할 사람은 누구인지 고민하던 백제왕이, '우리가 항복하는 데는 우리 나라 사람인데 항복하는 게 낫다'며 김유신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이다.³⁸⁾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활쏘기 시합에서 김유신과 그의 병사들이 당나라 병사들을 눌러 쫓아버렸다는 것³⁹⁾으로, 민중의 외세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김유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는, 고구려 첩자의 피임에 빠져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사가 습격을 받아 싸움에 졌다는 월성군 산내면의 설화⁴⁰⁾가 있다. 설화 속에서 그는 언제나 승리자의 모습만 하고 있지는 않으며 때로는 패배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전북 부안군 보안면 설화에서는 당나라에 군사를 청한 것을 비판하고 신라가 제대로 온 삼국통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신라가 왕건에게 패했다는 이야

38) <김유신과 장육산>, 앞의 책.

39) <홍무왕 김유신의 일화>, 『대계』, 전북 남원군 송동면, pp.314~316.

40) <김유신과 장육산>, 앞의 책.

기를 덧붙였다.⁴¹⁾ 三韓一統의 의식에 젖어 김유신을 높이기에만 급급했던 사대부들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민중의 시각이 이처럼 구비설화에 살아 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구비설화 속에 나타나는 김유신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함도 강조되지만 凡人으로 낮춰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유신과 관련한 도술 이야기 역시 김유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기보다는 주변적 인물로 축소되어 '김유신 같은 영웅도 자기는 미치지 못하는 경지가 있다는 것'⁴²⁾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최사>에서는 도술을 잘 부리는 密本法師가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려 하던 因惠師를 땅에 박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이때 김유신이 밀본법사에게 그를 풀어주라고 부탁해서 풀려났다고 했다. 그리고 <죽통미녀>는 한 나그네의 대나무 통에서 두 미녀가 나와 정담을 나누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홀연 사라졌다는 도술을 구경한 이야기이다. <노옹화구>는 김유신이 잘 아는 늙은이의 변신술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김유신은 영웅적 면모도 없고 뛰어난 도술 능력도 없다. 단지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4. 江陵 端午굿의 金庚信 전승

설화를 창조적으로 수용·발전시키는 민중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부락을 지켜줄 신앙 대상을 역사적 인물에게서 찾기도 하였다. 영동·영남 지방에서의 경순왕, 공민왕, 단종대왕, 범일국사 등, 그리고 해안·섬 지방의 임경업, 최영, 남이 등⁴³⁾ 역사적 인물의 부락신 전승 형태가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부락의 '질서와 조화의 규칙적인 세계'를 구현시키기 위한 신적 대상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김유신 역시 담당하여 강릉 지역의 部落祭인 단오제에서 전승되었다. 장군신으로서의 그의 神格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김유신이 장군신으로서 현재까지 전승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강릉단오제에서 김유신이 장군신으로 모셔지게 된 데에는 그가 강릉에서 수련을

41) <김유신과 신라의 패망>, 『대계』, 전북 부안군 보안면, pp.583~584.

42)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集文堂, 1990, p.54.

43) 이필영, 『마을 신앙의 사회사』, 1994, p.18.

했던 경력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허균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명주(지금의 강릉)에 갔다가 5월 초하룻날에 대관령신을 맞는다기에 吏屬에게 그 연유를 묻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대령신이란 바로 신라 대장군 김공 유신입니다. 공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하였는데, 산신이 검술을 가르쳐 주었고, 명주 남쪽 禪智寺에서 칼을 주조하였는데, 90일만에 불 속에서 꺼내니 그 빛은 햇빛을 무색하게 할만큼 번쩍거렸답니다. 공이 이것을 차고, 성내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오곤 하였는데, 끝내 이 칼로 고구려를 쳐부수고 백제를 평정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대령의 산신이 되어 지금도 신령스런 이적이 있기에,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번개와 향화를 갖추어 대령에서 맞다가 명주 부사에 모신답니다. ……”⁴⁴⁾

이속이 하는 말을 통해 본다면 무속에서 김유신이 장군신으로 모셔지기 시작한 것은 선지사에서 주조한 칼로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죽은 후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미추왕 죽엽군조』의 일화를 떠올리게끔 한다. 즉 죽어서의 異蹟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를 보면 김유신은 사후에 자신의 자손이 냉대받음에 노여워하여 국가수호를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한다. 이는 무속신이 자신의 능력을 무기로 하여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행태와 같다. 이를 미추왕이 설득하여 막았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신 김경신으로 하여금 김유신의 능에 가 사과하게 하고, 김유신이 평양을 친 후 세운 추천사에 공덕 보전 삼십결을 내리어 명복을 빌었다고 하였다. 왕이 두려워 대신 김경신을 보내어 사과하고 보전을 주어 명복을 빌게 한 것은 신을 달래고 열려 자신들을 위한 수호자의 역할 수행을 부탁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 기록은 처음에 그가 국가 수호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삼국간 전쟁의 영웅으로서 국가 수호신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김유신이 어떻게 강릉 지역이라는 협소한 공간의 신격으로 축소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양자가 함께 공유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려 때만 하더라도 睿宗과 尹瓘에 의해 김유신은 국가적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었다.

高麗 一代에 花郎의 思想을 實行하라든 君臣 兩人이 잇스니 睿宗과 尹瓘이다. 睿宗

44) 許筠 著, 정양완 譯, 『腥所覆葫蘆』, 卷14, 민족문화추진회, 262~263쪽.

金庚信 傳承의 양상과 그 의미

本紀에 據하면 그 十一年 四月에 “四仙之跡所宜加榮 …… 國仙之事此來仕路多門宜令大官子孫行之”의 소를 下하였다 …….

如何間 睿宗은 花郎思想을 가진 人軍으로 女眞征伐도 이 思想을 實行한 것은 明白하며 尹璣은 新羅 花郎 金庚信을 崇拜하여 爲國祈禱의 忠誠과 六月熱河의 熱信을 가진 人物로 睿宗과 同意하여 女眞을 征伐하여 北邊을 開拓하고 九城 建設하였다.⁴⁵⁾

그런데 조선 경종 때 『臨瀛誌』를 취사선택하여 만든 『江陵誌』를 보면 예종 이전에 강릉 지역에서 대관령산신제가 치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있다.

왕순식이 고려 태조를 따라서 남쪽을 정벌할 때, 꿈에 두 신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구해주었다. 문득 깨어 보니 싸움에 이겼다. 고로 대관령에 祠宇를 지어 致祭를 올렸다.⁴⁶⁾

위의 기록들을 놓고 볼 때 김유신장군신은 처음에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일대의 ① 지역신적 위치와 국가의 수반까지도 떠받드는 ② 국가 수호신의 위치를 함께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후대에 갈수록 ①의 성격만이 존속하여 허균의 시대에 와서는 그 자신도 낮은 강릉 지역의 장군신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김유신장군신이 강릉단오제의 산신으로 나타난다. 허균의 보고 때에 등장하지 않았던 범일국사신이 등장하여 전대의 인격신적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허균은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대령신으로서 주신을 김유신이라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강릉 지역의 사람들은 山路安全과 풍농, 풍어를 비는 강릉단오제를 거행하는데, 이때 주신인 서낭신은 범일국사신이고, 산신은 김유신장군신이라고 한다.⁴⁷⁾ 즉 현재 김유신장군신은 처음에는 국가 수호신의 기능을 담당하다가 강릉지역의 지역신으로서 주신이었던가 그 영역에 범일이 끼여들고, 현재에는 지역신의 산신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강릉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김유신이 무속의 신으로 모셔져 오게 된 까

45) 申采浩, 『朝鮮史研究草』, 研學社, 1946, pp.118~119.

46) 『江陵誌』 卷二 <風俗條>. “王順式從高麗太祖南征時 夢俗二神率兵來救 覺而戰捷 故祠宇大闢至于今致祭”.

47) 金善豊, “金庚信將軍神”,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4, 1988, p. 803.

닭을 살펴볼 차례다. 앞서서 필자는 김유신이 강릉에서 수련을 쌓았던 경력 때문에 신으로 숭앙된다는 『성소부부고』의 기록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강릉단오제에서 모셔지는 또다른 신들의 성격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지금은 祠宇가 없어지고 축후소가 들어서 있는 대성황당에 모셔졌던 신들은 十二神位였는데, 松岳山之神, 太白山之神, 南山堂帝形太上之神, 紺岳山大王之神, 城隍堂德慈母之神, 神武堂城隍神, 金庚信之神, 異斯夫之神, 草堂里夫人之神, 西山松桂夫人之神, 蓮花夫人之神, 泛日國師之神이 그 신들이다.⁴⁸⁾ 이 신들 중에서 범일국사⁴⁹⁾, 김이사부,⁵⁰⁾ 창해역사지신, 초당리부인지신,⁵¹⁾ 연화부인지신⁵²⁾은 신라인으로서 강릉 출신이나 강릉 사회 또는 강원도를 위해 봉사한 인격신들이라 할 수 있다. 김유신도 역시 이러한 강릉과의 관련성에서 인격신으로 숭앙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던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설화 속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김유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문헌들을 뒤적이고 구비물을 살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글은 진행된 셈이다.

처음에는 김장청의 『행록』이 가문의 쇠락을 염려하여 사실을 과장하여 김유신을 영웅적 인물로 그리기 위해 몰두하였으리라 추측하였고, 후대에 이야기되는 김유신 이야기의 기저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의 설화적 삽화들을 추출해 보고 『삼국유사』와 대비하면서 살폈다. 거기에서 김유신의 신이한 출생, 천상의 도움, 죽음의

48) 金善豊, “神話와 神歌考”, 『民俗學研究』, 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81.

49) 범일국사는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에 그와 관련된 학바위와 석천, 그리고 굴산사지가 있는데 감생설화가 전하여져 오고 있다.

50) 김이사부는 512년 阿瑟羅州, 즉 강릉의 군주가 되어 于山國을 공격할 때 나무로 만든 獅子로 위협하여 항복을 받았다. 『三國遺事』에는 그의 이름이 朴伊宗으로 되어 있다.

51) 초당리부인지신은 원래 충청도 사람으로 강릉의 초당리에 와서 처음으로 벼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김선풍, 위의 책, p.73)

52) 연화부인은 『高麗史』樂志 二에 나오는 <溟州歌> 전설의 여주인공이다.

金庚信 傳承의 양상과 그 의미

예전, 사후의 이적 등에서 확인되는 김부식과 일연의 찬술 태도의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김부식은 김유신의 출장입상의 면모에 중점을 두면서 영웅적인 인물로 형상화하였고, 일연은 김유신의 三世를 보여줌으로써 승려로서의 태도를 한층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다. 물론 그곳에서 나타나는 김유신의 삶의 궤적들은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의 다양한 사상이 스며들어 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구비전승물은 수련과정과 입공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현상과 역사적 사실에서 떠난 도술부리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유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이며 부정과 긍정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김유신 설화를 자신들의 삶과 창조적으로 결부시키는 민중이 이야기 주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듯 영웅적 면모만 강조하지 않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면모는 傳 문학 전통 속에서는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국가수호신에서 대관령산신과 같은 지역신으로 변화해 가는 김유신장군신의 성격 변천사를 구성하였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또한 민중의 역동적 수용에 의해 부락민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데서 나왔다 하겠다.

이 외에 김유신 전승의 모든 면을 살펴려면 傳 문학 전통 속에서 조선 후기에 쓰여진 <각간선생실기>나 <홍무왕연의>와 같은 것⁵³⁾을 더불어 살펴야겠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53) 이러한 전기문학은 김유신과 관련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파한집』, 구비설화 등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 김유신을 영웅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군담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삼국지연의』의 여러 대목들이 섞여들어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김유신전기의 작자로 밝혀진 사람은 김유신의 후손인金正均인데, 김해 김씨 문중 사람들이 여러 차례 필사하면서 여러 이본들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까닭에 자신의 조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커 『삼국사기』처럼 영웅상을 형상화하는 데에만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金鎭英, “金庚信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p.479. 재인용). 그런데, 소설사에서 개화기 전후에 발생한(목판본은 1896년 간행) 까닭으로 애국계몽기의 소설 작품들과 동패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金庚信傳>의 형성정보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유신實事 + 김유신行錄 → 삼국사기 열전·본기 김유신기사

諸史·群說·家傳

개국공실기 <— 각간선생실기 <— 홍무왕연의
김유신실기

참고문헌

1. 기초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破閑集』

『東京雜記』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五洲衍文長箋散稿』

『惺所覆瓿藁』

『江陵誌』 卷二 <風俗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실라국 홍무왕전이라>, 『필사본고소설전집』 26권, 원광대학교 영인본.

김종훈·김창우간본, 『각간선생실기』, 박두포 역, 을유문화사, 1972.

2. 참고자료

김선풍, “김유신장군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1988.

——, “신화와 신가고”, 『민속학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81.

김승호, 『한국송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김열규, “무속적 영웅고 : 김유신전을 중심으로 하여”, 『진단학보』 43, 1977.

김영하,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한국고대사론』, 한길사, 1981.

김진영, “문헌소재 김유신설화고”,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일조각, 1978.

김태준, “김유신 연구”, 『신라문학의 신연구』, 1986.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연학사, 1946.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90(중판).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1987.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4.

金庚信 傳承의 양상과 그 의미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9.
- 임형택, 「삼국사기의 문학성 : <김유신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연구』 12집, 1989.
- 장덕순 外,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7.
- 장정룡, 『강릉관노가면극 연구』, 집문당, 1989.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 ,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 주명희, 「국사기 열전의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최삼룡, 『한국문학과 도교사상』, 새문사, 1990.